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917.4	15.6	126,000	0.4	-3.4	-10.0	-1.9	87.8	42.1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684.0	21.5	349,000	0.9	-2.1	-7.6	0.9	4.7	3.9	0.6	0.5	14.1	14.7
현대알렉트릭	576.1	5.6	28,300	-0.7	-5.0	6.8	27.5	2.7	2.3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1,018.5	8.6	51,700	2.0	-6.2	13.9	21.1	3.3	2.4	0.4	0.3	11.7	13.9
삼성중공업	5,625.9	18.7	8,930	-0.1	1.4	18.6	20.5	56.3	27.9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189.4	10.9	29,750	2.1	-10.0	-19.0	-12.9	10.4	14.7	0.9	0.8	9.0	5.5
현대미포조선	2,288.7	13.0	57,300	0.0	-6.8	-5.3	-4.5	12.4	8.9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26.2	3.8	1,190	0.0	N/A	N/A	-28.1	23.9	6.0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284.0	21.2	84,100	2.3	-29.3	-10.8	-21.4	14.8	14.4	2.0	1.8	14.6	13.3
두산밥캣	3,117.7	25.7	31,100	0.2	-10.0	-4.4	-1.3	11.4	10.7	0.9	0.8	7.4	7.6
현대로템	1,912.5	2.8	22,500	2.7	-21.1	-17.3	-19.2	29.0	19.8	1.3	1.2	4.5	6.3
하이儿女코리아	251.8	47.4	18,500	4.2	-0.5	6.9	12.5	8.4	7.7	0.7	0.7	8.8	9.0
성광밴드	304.6	15.3	10,650	3.9	-8.2	-15.7	-6.6	941.4	38.2	0.7	0.7	0.1	1.8
태광	287.5	11.6	10,850	4.8	-12.1	-20.0	-7.3	64.8	31.6	0.7	0.7	1.0	2.1
두산중공업	924.3	8.8	7,890	1.2	-27.9	-28.9	-18.9	-20.4	8.2	0.3	0.3	-0.1	4.1
두산인프라코어	1,588.3	16.6	7,630	1.2	-8.8	-3.0	0.5	5.2	5.6	0.8	0.7	17.7	13.8
HSD엔진	155.7	3.6	4,725	1.6	-12.3	-16.4	-10.5	-12.4	N/A	0.7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533.5	15.6	36,250	-1.2	9.4	14.7	13.6	52.9	24.8	32	29	6.1	12.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93.9	14.8	32,550	-0.6	2.7	2.7	0.2	134.9	24.6	0.7	0.7	0.6	3.0
LIG넥스원	815.1	8.6	37,050	-1.7	5.6	5.9	0.3	77.1	25.6	1.8	1.3	2.7	6.4
태웅	207.1	4.3	10,350	3.5	-5.0	6.0	-1.4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35.6	3.3	8,730	2.1	10.6	10.4	13.1	-18.4	24.1	3.2	2.9	-16.2	12.7
한국카본	375.0	14.2	8,530	1.1	6.9	21.2	21.2	132.8	25.3	1.2	1.2	0.9	4.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 '소난골 드릴십' 이달 최종 인도…현대重도 '화색'

양글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은 이번달 대우조선해양 드릴십 1기 인도에 합의 후, 최종 합의의 중으로 알려짐. 밸주처의 자금 마련은 끝났고, 행정적 협상 절차마침금. 기준 계획은 1월 말과 3월 말에 각 드릴십 1기씩 인도였으나, 지연됨. 올 상반기까지 나머지 1기도 인도하면 잔금 9천억원 회수가 예상됨. (한국경제)

현대重, TF 꾸리고 다음주 대우조선 실사 돌입

현대중공업은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에 앞서 M&A TF를 꾸렸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실사에 들어갈 계획임. 재무적 회계뿐 아니라 기술적, 연구개발, 영업력, 산업환경 등을 살릴 계획이며, 현장 실사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알려짐. 다만 노조 반발로 실사 작업에서 마찰이 예고된 상황임. (이데일리)

US and Canada are used to enforcing tough emissions mandate

미국과 캐나다는 IMO 2020 시행에 앞선 2015년 이후부터 각 국의 인근 해역에 ECA(Emission Control Area) 설정을 통해 황 배출량 0.1% 규제를 시행해왔음.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규제 미준수 선박에 대해 벌금부터 구금까지 시행했음. 미국은 황 함유량에 따라 톤당 150~750달러 벌금을 부과함. (TradeWinds)

김상조 "대우조선M&A, 지멘스-알스톰과 달라…합리적 결론낼것"

김상조 위원장은 대우조선 인수 관련 경쟁당국보다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외국 경쟁당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힘. 18일 EU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지멘스-알스톰 철도사업 합병과 달리, 조선산업은 수요처가 다양하단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Technology to handle Hapag-Lloyd boxship conversion

그리스 엔지니어링 업체 Technolog는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의 1.5만TEU급 컨테이너선을 LNG 추진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전환 초기계획 단계에서도 컨설팅에 참여했음. 중국 Hudong-Zhonghua 조선소 산하 Huarun Dadong 수리조선소(HRDD)에서 전환 작업을 수행할 계획임. (TradeWinds)

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 초대형 컨선 발주 열풍 끝나

미스크 관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더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할 의도가 없다고 언급. 또 해운전문 자문회사 시인텔리전스 컨설팅 관계자는 무역분쟁 등 수요둔화에 따라 1.8~2.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끝으로 해운사간 컨테이너 크기를 키우려는 선박 발주 경쟁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3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료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0%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3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